

Les Athlètes du Vin



VINI
Be GOOD
LES ATHLÈTES DU VIN



루아르 와인메이커들과 함께한 네고시양 프로젝트

‘레 아틀렛 뒤 방(Les Athlètes du Vin)’은 루아르 벨리의 전형성을 보여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고자 와인메이커와 네고시양이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다. 처음 아이디어는 프랑스 와인메이커 협회인 ‘비니 비 굿(Vini Be Good)’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비니 비 굿의 여러 멤버들 혹은 그들의 친한 친구 와인 메이커들(루아르 벨리 내에 위치한)에게 직접 공수한 포도만으로 양조한 와인들로 이뤄진다.

파리 와인 컴퍼니는 비니 비 굿의 2명의 생산자와 함께 일하는데 샤토 이본느(Château Yvonne)의 마티유 발레(Mathieu Vallée)와 끌로 시냐도흐(Clos Signadore)의 크리스토프 페랑디스(Christophe Ferrandis)와 함께 하고 있다. 두명의 와인메이커와 그들의 친구, 그리고 가족이 함께 만든 와인들로 일부 꺄베는 마티유 발레의 형제인 제라흐 발레(Gérard Vallée)가 만들기도 했다.

레 아틀렛 뒤 방의 눈길을 잡아끄는 라벨은 프랑스 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인 미셸 톨머(Michel Tolmer)가 디자인 했으며 미셸은 1990년대부터 프랑스 내추럴 와인 라벨 디자이너 중의 비공식적인 리더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 와인의 빈티지와 블렌딩, 라벨 디자인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http://www.vinocus.co.kr/>
02-454-0750